

도시민 여가 선용 · 농촌 이해력 향상

익산시, 주말가족농장 운영 참여자 신청접수

익산시는 도시민의 여가 선용과 농업·농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말가족농장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말가족농장은 건강한 먹을거리 재배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자연체험 학

습장으로 제공된다. 올해 분양면적은 17가구당 33㎡내외로 총 1만 3899㎡부지에 270가구를 분양한다. 주말가족농장 참여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기술보급과에서 진행된다. 농장은 오는 12월까지 임대되

며 분양가격은 가구당 1만5000원이다. 농장은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2년 이내 익산시 전입가족, 다자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무추첨 특별 우선 선정한다. 이 외 신청자는 컴퓨터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 분양이 완료되면 오는 3

월 30일 주말농장운영 설명회와 함께 농작물 재배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장정리와 밀거름 시비, 가족 표찰 지인 및 정기적인 농작물 재배 관리교육을 실시해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군산시가 미세먼지 걱정 없고 연료비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6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월 21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이상 시민, 기

업, 법인, 단체로 자동차판매사가 구매예정자로부터 받은 구매신청서를 포함한 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ps)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 보조금은 신청주체당 1대이며 차종에 따라 최대 1,50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출고(2개월 이내),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동시에 자동차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연차적으로 증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중소기업 대상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오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내 입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군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 지원 기관들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 ▲규제개선 의견수렴 ▲지방세 납세지보 호관 제도 설명 ▲유관기관들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용자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1:1 현장 상담부 스를 운영해 참석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학년 프로젝트 과제로 수행했던 성과를 전 시하여 관내 기업들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특강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오는 28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고등학생(입학 예정자 포함)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고등학교 전반적인 학교생활 안내, 자기주도적인 학습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걱

정을 덜어주고 변화하는 대입전형으로 고민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성공적인 입시 대응을 위한 학년별 입시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주)기움에듀의 진영웅 대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되는 학년별 대입전형 분석과 사례로 보는 대입성공 전략 노하우 및 진로탐색의 key'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장영재 교육지원과장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강연으로 대학입시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내고 궁금한 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생, 학부모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454-25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고용노동지청,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현장 활동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최근 작업장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장해에 노출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현장지도활동을 펼친다.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근무하는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지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활동은 2017년 12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의 개정에 따라 분진에

황사·미세먼지(PM10, PM2.5)가 추가되어 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 내 옥외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유해성 주지(제614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제617조)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 근로자들의 적극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도 유해성 주지 및 호흡용 보호구 지급 등 지급 법적 의무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를 유관기관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바 있으며 3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각종 점검 및 감독과 관련 사업주의 동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박미심 지청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주 발생하는 불철을 맞아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관내 대형목욕시설 현장 안전점검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힐스톤 온천리조트 등 관내 목욕탕 4개소를 방문해 화재위험 요인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안전점검은 지난 19일 사망 3명 등 91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도심 목욕탕 건물 화재발생과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형 인명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자동출입문 및 소방시설의 관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대피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목욕탕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구창덕 서장은 “목욕탕은 복잡한 공간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아 비교적 대피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용객들에게 주출입구 외에 비상



대피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대책을 통해 목욕탕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학교는 봉사단이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네팔 룸비니서 의료봉사

원광대 제생의세 봉사단

원광대학교는 제생의세 봉사단이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귀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네팔 테라이 지방 룸비니에서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원광대와 삼동 인터네셔널이 공동 주관하고 익산마한로타리클럽, 원광대학교 병원, 한밭교수회, 원광의대동창회, 원광치대동창회가 후원했다.

올해 의료봉사는 총 985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았으며 외과, 피부과, 안과, 내과, 근골격,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치과, 한방과 등에서 총 1810건의 진료와 처치

가 이뤄졌다. 봉사단은 복부, 유방, 갑상선 초음파와 세극등 검사, 돋보기안경 제공,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비롯해 치과 스케일링, 발치, 구강농양배출 등의 진료를 펼쳤다. 한방치료는 침술을 기본으로 부항, 운동치료, 개인생활 습관교육 등과 함께 한약도 처방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의료봉사와 함께 포카라, 카트만두 원불교 기 관에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며 “원광대 제생의세 봉사단은 네팔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원회 회장으로 김상덕(안과) 교수를 선임해 지속적으로 연초적인 의료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익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신청 접수

익산시는 운송사업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허가 신청은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한해서 수리한다.

이번 재허가 조치는 지난해부터 재허가 시 허가 유효기간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한 번 재허가를 얻으면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재허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본사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돼야

함), 신규 허가 때 발급했던 허가증,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859-556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개인 사업자들에게 세심히 안내하여 재허가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재허가를 받은 차량이 택배 외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